

## 국제유가의 상승이 아제르바이잔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 윤 섭  
경희대학교

### < 목 차 >

I. 서론	참고문헌
II. 체제의 전환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	보론
III.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Abstract
IV. 결론	

Key words(중심용어): Azerbaijan(아제르바이잔), Economic Development(경제발전), International Oil Price(국제석유 가격), Dutch disease(네덜란드 병)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신흥석유수출국으로 떠오른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국제 고유가의 지속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국제 고유가의 지속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자원이 자원부문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제르바이잔의 거시 경제지표들을 대비하여 봄으로써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I. 서 론

1991년 구소련 연방 붕괴와 함께 새로운 신생독립국들이 생겨났다. 이 중 상당수의 국가들은 체제의 혼란, 경제적 빈곤, 정치적 불안 등 많은 문제들의 발생으로 인해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심대상 국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들 국가 중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국가들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국제유가 및 자원가격의 상승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국제시장에서 이런 동향이 지속될 경우 이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국제시장 자원가격의 동향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회의적 시각을 가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국가의 독재적인 정치체제,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체제도 사회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어 효율적인 경제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장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 발전은 자원 수출국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가 외생변수로서 국가단위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여 국제유가의 변동에 의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 기조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은 경제 구조적 문제로서 자원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지는 못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즉, 자원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 분야로 생산요소가 집중되게 되지만 자원분야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므로 다른 부문으로부터 이동되는 생산요소(특히 노동)를 흡수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구조적 실업이 발생함과 동시에 2차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 경제구조의 편중성과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인하여 자원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국가들 중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아제르바이잔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두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경제성장의 속도에서는 두 국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SOFAZ라는 석유기금을 마련하여 석유수출로 인한 외화의 국내유입을 조절함으로써 급격한 통화팽창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이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아제르바이잔의 현재와 미래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발전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주변 신흥 석유 수출국가에 대한 분석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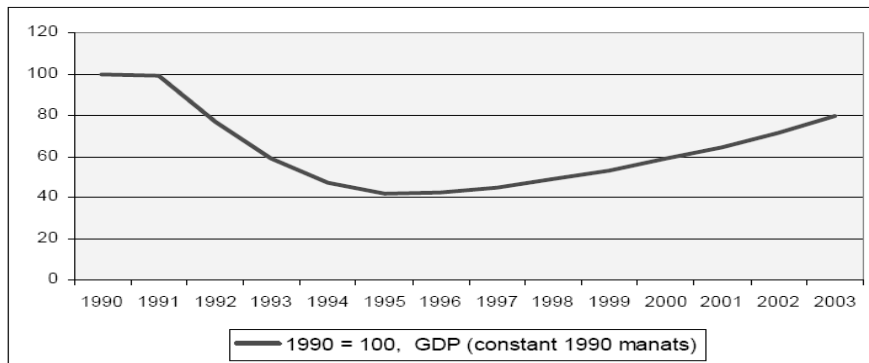
## II. 체제의 전환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

### 1. 체제 전환기의 경제적 충격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다른 신생독립국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이후 상당한 경제적 충격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규모와 경제구조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었다. 독립 후 1995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를 겪었는데 1995년에 이르러서는 1990년에 비해 GDP의 수준이 40%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World Bank, Report, 2005).

이 시기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방국가들 모두 비슷한 경제적 침체를 겪었다. 러시아의 경우 91년에서 98년의 기간 동안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가 계속되었으며, 1998년에는 대외채무변제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에서 1998년의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은 43%가 감소했고, 2차 산업제품의 생산은 54% 감소했으며 농업생산은 43.5%가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민간 저축률도 감소했으며 민간저축이 국민총생산에 투입된 비율은 1991년의 37%에서 1998년에는 16.3%로, 자본시장에서의 투입비율은 23.8%에서 17.3%로 감소했다(Russian State Committee for Statistics, 2000).

[그림 1] 아제르바이잔 GDP의 상대적 변화



World Bank, Report No.32371-AZ, 'Azerbaijan Issues and Options Associated with Energy Sector Reform', 2005

아제르바이잔이 석유매장량이 풍부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시대의 경제구조는 농업 중심의 구조였다. 이는 구소련시절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소련의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서시베리아 지역에 석유 관련 투자를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Center for Energy Economics, 2006). 이는 구소련 연방의 지역별 경제특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며, 구소련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여 있던 아제르바이잔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경제구조를 농업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국제거래에 있어 공급과 수요가 가격비탄력적 성향을 보여 왔으며, 대부분의 농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경제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국제시장의 협상력이 낮아 국제거래상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과 함께 사회주의적 특성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경제체제의 전환은 경제의 기반인 농업부문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또한 정부도 재정의 부족과 국제시장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유발하였다(Photious Coutsoukis, 1994).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체제전환 후 당면하게 된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활동을 위한 생산요소들이 농업부문에 집중되었던 결과로 자국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적, 자본적 기초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석유채굴은 자본집약 정도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며, 기술면에 있어서도 상당수준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구소련의 통제하에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기술과 자본을 축적할 여력이 없었으며, 그 결

과 체제 전환 후 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역량이 부족했다. 석유채굴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매장은 대부분이 카스피해에 분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육상 채굴방법으로는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Nasib Nassibli and Shahyar Daneshgar, 1998).

이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체제전환 이후 상당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산업구조의 재편에 관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재편은 부족한 국내자본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기를 유발하였으며, 새로운 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던 국제적 석유회사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상당수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2. 경제적 충격의 극복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해당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경제체제의 변환과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든 것은 1996년부터였으며, 2003년 이후 국제 석유시장에서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표 1>에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 상승률이 제시되어 있다. 1998-2002년 평균 실질 GDP 상승률을 볼 때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7.7%의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평균의 2 배 이상의 성장을 하였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2005년부터이며 2005년 24.3%, 2006년 31.0%로 다른 중동 산유국 및 CIS 국가들에 비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국제석유가격의 상승과 BTC 송유관의 개설 등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수출을 확대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의 유입을 촉진시킨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이 국제유가의 상승 및 아제르바이잔 석유 산업의 활성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유수출의 확대와 더불어 아제르바이잔 경제를 발전시킨 또 다른 요인은 해외투자의 유입이다. 2004년에는 카스피해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송유관 건설 등으로 45억 달러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2005년에는 외국자본의 순유입이 48억 9,300만 달러, 2006년에는 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 석유메이저들의 대규모 건설투자가 일단락되는 단계에 있어 앞으로의 외국 자본의 유입은 10-20억 달러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07).

[표 1]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 상승률

	1998- 2002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상치
중동 및 중앙아시아 석유 수출국들	3.7	7.6	6.2	6.4	6.2	6.3
알제리	3.6	6.9	5.2	5.3	2.7	4.5
아제르바이잔	7.7	10.4	10.2	24.3	31.0	29.2
이란	4.2	7.2	5.1	4.4	5.3	5.0
이라크	-	-	46.5	3.7	3.0	10.4
카자흐스탄	6.8	9.3	9.6	9.7	10.6	9.0
쿠웨이트	8.2	16.5	10.5	10.0	5.0	3.5
리비아	2.2	5.9	5.0	6.3	5.6	7.9
카타르	7.1	3.5	20.8	6.1	8.8	8.0
사우디아라비아	1.5	7.7	5.3	6.6	4.6	4.8
투르크메니스탄	15.6	17.1	14.7	9.0	9.0	10.0
UAE	4.0	11.9	9.7	8.5	9.7	8.2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2007. 03., p. 34.

[표 2] 아제르바이잔 FDI 유입

(단위: 백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FDI	927	1,091.8	2,234.9	3,371	4,575.5	4,893.2	5,052.8
증가율	-	17%	104%	50%	35%	6%	3%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http://www.azstat.org/>

### III.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비록 외부적 환경요인이 우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근본적인 경제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의 체제전환기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석유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석유수익이 높을 때에는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외부변수인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점차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불균형적 성장

현재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은 석유부문의 성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아제르바이

관을 대표할 수 있는 제조업과 기반 산업이었던 농업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의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국제유가의 하락이 현실화된다면 석유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노동력의 재이동, 경제성장의 기반인 석유산업의 침체로 인한 성장둔화, 실업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구조적 불균형의 다른 문제로는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이 집중되면서 구조적 실업문제와 제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과거 네덜란드가 경험했던 경제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정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명명하고 있다(Corden & Neary, 1982).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국제시장에서의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 국제시장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은 일반재에 비해 2배 이상의 변동이 있었으며, 이는 국제유가 추세를 기준으로 편차의 변화를 보더라도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Dehn, 2001).

자원부국이 자국의 자원을 이용한 경제발전을 시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자원채취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됨으로서 자원의 불균형적 활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Auty, 1998). 이러한 자원의 불균형적 활용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자원채취와 관련된 서비스 관련 산업의 성장률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필요한 노동 혹은 자본 등 여러 생산요소들의 가격이 높아져 생산요소들이 이 부문으로 과잉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부 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 국가는 균형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일정부분에 편중된 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의 정체와 다른 산업의 쇠퇴를 유발하게 되어 자원의 풍부함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Devlin and Lewin, 2004; Gylfason, 2001).

신흥석유수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신흥 석유 수출국들의 석유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네덜란드 병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Raiser et al, 2004). 이는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이 자원개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 통화량의 증가를 유발하여 해당국의 실질환율의 절상을 유발하게 된다. 실질환율의 절상은 자원개발 산업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수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질환율이 절상될 경우 다른 산업 부문의 국제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Mehrara and Oskoui, 2007).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이 부분에서 특히 취약한데 구소련 시절 경제발전의 기반이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조업부문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국내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체제전환은 시장질서의 혼돈을 초래하였으며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경우 일정시점 후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성장이 자원수입국에 비해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자원개발을 통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제조업 기반을 형성하는데 재투자함으로써 경제구

조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도 2003년 총수출에서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이고 에너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6%로서 전체 GDP의 1/3 정도가 에너지 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ADB, 2005). 이를 통하여 현재 아제르바이잔이 보이고 있는 급격한 경제성장은 에너지 부문의 편중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중성은 러시아의 경우 16.3%, 카자흐스탄의 경우 21.1%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제르바이잔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2004년을 기점으로 물가상승률과 달러화 대비 환율도 각각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2005년 9.6%, 2006년 13.0%로서 경제성장률의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달러 대비 환율의 경우 2005년 0.92%, 2006년 0.87%로 평가절상 되었다(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부, 2006). 이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는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성장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네덜란드 병’의 징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지극히 에너지 산업 의존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조업부문의 경쟁력과 관련된 거시경제지표들은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제르바이잔의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경제성장은 정체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world bank, 2005). 더 나아가 국제유가의 변동과 같은 외부경제의 충격이 일어날 경우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경제적 불평등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시도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체제전환국가의 경제적 불평등은 대부분 임금 감소 압력과 민간부문의 불균형적 성장, 경제구조 재편, 부패, 시장경제체제와 인플레이션, 민영화 등에 의해 유발된다(Pradeep Mitra and Ruslan Yemtsov, 2006).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제 전환기의 경제가 겪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이다.

사회주의적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되면서 국유기업들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유기업들의 민영화가 진행되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성예산(soft budget)을 편성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게 된다. 특히 민영화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한 많은 국가들에서 기존의 기업운영자 혹은 권력층들이 민영화 된 기업들의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체제전환 후에도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 혹은 확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시장경제체제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체제인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 관료들의 부정부패, 민간부문 경제의 소수에 의한 과점, 세수의 부족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세계화와 국제적 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어져 이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다른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발전 및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소수에 의한 민간부문 경제의 과점화는 심각한 부(富)의 불균형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산업구조와도 관련이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2006)의 조사에 의하면 농업과 광업 간의 임금격차가 약 12.4배 정도에 달하여 산업부문 간에도 부의 불평등 분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문제해결을 위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노력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네덜란드 병의 존재와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자원부문의 성장으로 인한 실질환율의 절상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과 다각화를 통한 제조업 분야의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두 방법을 통한 경제의 안정화와 다각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UNDESA, 2002).

이러한 문제는 아제르바이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석유 수출국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정부수입으로 편입하게 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은 이 수입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Denh(2001)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석유시장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의 재정수입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불안정한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재정지출과 석유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수익의 사용을 단절(de-linking)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지출과 석유 수익의 단절을 위해 활용되는 것 중 주된 것이 '석유수익펀드'이다. 이 석유펀드의 축적과 다른 사업 분야로의 투자는 경제가 자원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제조업 분야 등 다른 산업육성을 통해 경제적인 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세계석유 부존량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경우 석유수출이 전체 GDP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수출수익의 90% 이상, 정부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Mehrara and Oskoui, 2007, p. 367.). 이로 인하여 국내의 물가는 높아지고 1인당 실질소득은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쿠웨이트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석유수익의 상당부분을 축적하여 왔다. 차세대 펀드(Future Generations Fund: FGF)는 1976년에 설립되었는데 이 펀드는 1960년에 이미 설립되었던 일반저축펀드(General Reserve Fund: GRF)로부터 당시 축적된 자금의 50%를 지원받고 매년 10%의 정부재정 수익을 지원받고 있다. 이 펀드 조성의 목적은 향후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1982년 쿠웨이트 투자청(Kuwait Investment Authority: KIA)가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독립적인 법적기구로서 FGF, GRF 등 펀드 기금들을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도 병



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식하에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SOFAZ)를 설립하여 석유수입의 상당부분을 축적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SOFAZ를 통하여 석유수출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의 70%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비율은 중동의 산유국들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며, 앞서 살펴보았던 쿠웨이트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IMF, 2005).

아제르바이잔은 이 기금의 엄격하면서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금으로부터의 출금수준을 당해 연도의 수익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출금수준 제한의 목적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제석유시장의 변동이 일어날 경우 이 변동이 아제르바이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즉,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충격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기금운용을 긴축적으로 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국 경제의 석유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네덜란드 병의 위험성을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 수출로 인한 수익이 국내로 급격히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셋째로는 자국의 거시적경제변수의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상당량의 석유수출을 통한 수익이 국내경제에 유입됨으로써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1인당 실질소득수준의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비율로 석유수익의 국내유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금의 활용에 있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석유 기금의 상당부분을 정부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부문의 경제적 낙후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수입이 충족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시키게 될 경우 현재의 권력층이 안게 될 정치적 부담도 한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시각에서 SOFAZ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통해 정부가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수준은 출금수준의 20-30%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석유기금을 통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의 다각화를 실현하려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계획은 명목적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경제구조, 정치구조, 체제변환 과정상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석유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치구조상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체제 전환국들이 겪고 있는 부정부패의 문제도 석유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만일 석유기금이 이러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활용된다면 국제유가의 변화와 같은 대외 경제적 충격에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려 한다면 석유기금의 합리적 활용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이 기금을 운영해야 하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비중을 둔 기금의 활용과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이면서도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과 현재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제르바이잔이 국제사회나 학계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석유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과 과연 이러한 형태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체제전환을 시도하면서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극복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석유산업에 대한 편중성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제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에 관한 여러 지표에서 아제르바이잔이 네덜란드 병의 징후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석유의 수출로 확보한 자금을 제조업의 육성 보다는 재정 부족을 보충하는데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제르바이잔이 현재 아주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산업기반은 취약하며 그 구조도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아제르바이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한 기업들의 경우 현재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구매력이 향상됨으로 인해 진입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금물이다.

둘째,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갖추는 것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카스피해 유역의 국가들은 항상 정치적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진입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과 국제유가와와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거시경제지표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간 지표만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계적 검증에 활용해 보았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통계적 검증과 관련하여 Cholesky 분산분해 결과를 <보론>에 담아 보았다.

## 참 고 문 헌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http://www.azstat.org/>'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부(2006), Economic Profile of the Country-200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아제르바이잔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3., p. 5.
- ADB, Country Key Indicator, 2005.
- Auty, R., Resource-Based Industrialization: Sowing the Oil in Eight Developing Countries, Clarendon Press, Oxford, 1990.
- Auty, R., “Natural resources, the state and development strategy”,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9, 1997, pp. 651-663.
- Auty, R., “Mineral wealth and the economic transition: Kazak(h)stan”, Resources Policy vol. 24, 1998, pp. 241-249.
- Birdsall, N., Ross, D. and Sobot, R. “Education, growth and inequality”, in Birdsall, N. and Jasperson, F.(eds.), Pathway to Growth: comparing East Asia and Latin Americ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ashington DC, 1997, pp. 93-127.
- Center for Energy Economics, “New Era in Oil, Gas & Power Value Creation. Case-Studies: Oil Monetization in Azerbaijan.”, Univ. of Texas at Austin, 2006, p.2.
- Corden W.M. and Neary J.P., “Booming Sector and De-industrialization in a Small Open Economy”, The Economic Journal 92. 1982. pp. 825-848.
- Dehn, J, “The effects on growth of commodity price uncertainty and shocks,”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01, vol. 2455.
-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ance in Preparing 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UNDESA, 2002, p. 7.
- Devlin, J. and Lewin, M., Managing Oli Booms and Busts in Developing Countries, Draft Chapter for: Managing volatility and Crises, A Practitioner’s Guide, 2004.
- Gelb, A.H. and Associates. Oil Windfalls: Blessing or Curs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 Gylfason, T., Nature, Power and growth, Center for Economic Studies and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CESifo Working Paper Series, vol. 413, 2001.
- IMF(Middle East & Central Asia Department), “Regional Economic Outlook”,2005.
- Jouko Rautava, “The role of oil prices and the real exchange rate in Russia’s economy - a cointegration approac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004, pp. 315-327.
- Matsuyama, K., “agricultural productivity, comparative advantag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Theory 58, 1992, pp. 317-334.
- Mehrara, M. and Oskoui K. N., “the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oil exporting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Economic Modeling 24, 2007, pp. 365-379.
- Nasib Nassibli and Shahyar Daneshgar, “Oil and Geopolitics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The Independent Azerbaijan’s Oil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8 전문.
- MF,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2007. 03., p. 34.
- Photious Coutsoukis, “Azerbaijan Agriculture: <http://www.photius.com/>(based on CIA World Fact Book & The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1994.
- Pradeep Mitra and Ruslan Yemtsov, “Increasing Inequality in Transition Economies: Is

there more to come?", World Bank 2006, p.11.

Raiser M., Schaffer, M.E., Schuchhardt, J., "Benchmarking structural change in transitio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5, 2004, pp. 4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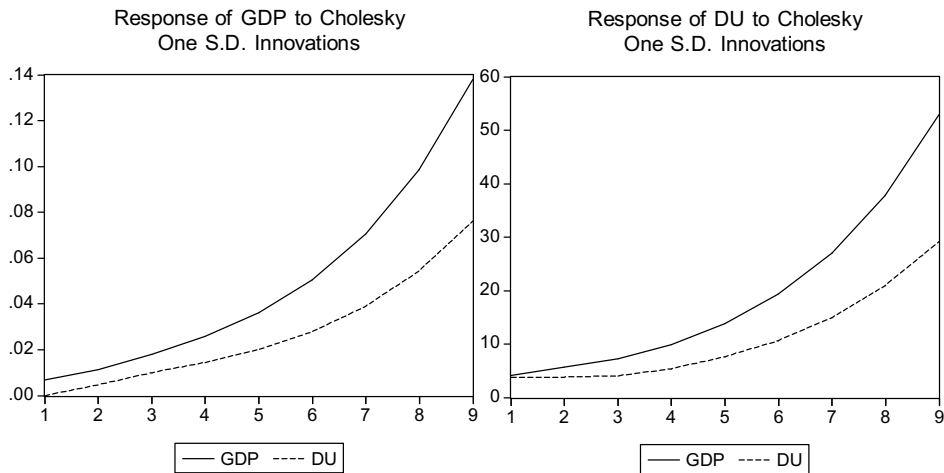
Russian State Committee for Statistics, 2000.

Wood, A and Berge, K., "Exporting manufactures: Human resources, natural resources and trade polic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4, 1997, pp. 35-39.

World Bank, Report No.32371-AZ, "Azerbaijan Issues and Options Associated with Energy Sector Reform", 2005 p.2.

World Bank, Report No.32371-AZ, 'Azerbaijan Issues and Options Associated with Energy Sector Reform', 2005, p.3.

## 보 론



본 연구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를 활용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려 시도하였으나 상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산분해의 결과가 일정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퍼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해석과 언급은 본문에서 생략하였다.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환율, 물가, 국제유가 등을 활용하여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건전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Oil Price and Its Effect on Economic Growth of Azerbaijan

Hwang Yun Seo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under high oil price circumstances. Although the Republic of Azerbaijan seems to in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in fact, may have structural economic problem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product factors (e.g. labor, capital etc.) into the natural resource mining sector. This phenomenon will make major barriers to economic growth of Azerbaijan and, consequently, cause weaken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is paper, many publications from well-known organizations such as world bank, IMF, UN, etc. was used to analyze macroeconomic indicators of Azerbaijan. I finally discussed about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Azerbaijan economy.

■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29일, 논문심사일 : 2007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07년 11월 22일

---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